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와 제한성

김 경 위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국주의사가들과 사대주의사가들이 써놓은 력사자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전집》 제2권 164~165페이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출판인쇄기술의 새로운 력사를 개척하여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문헌들을 출판하여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새겨왔다. 그러나 그 귀중한 문헌들이 외래침략자들의 파괴와 략탈로 말미암아 수많은 류실되었으며 더우기 발해 및 후기신라이전시기의 문헌은 한건도 남아있는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앞선 시기의 민족고전들이 전해지지 않는것으로 하여 발해 및 후기신라이전시기의 력사연구에서는 중국고전들이 적지 않게 리용되고있다.

이러한 중국고전들가운데는 1060년에 북송(960—1127년)의 구양수, 송기, 송민구, 범진, 려하경, 매요순 등이 편찬한 《신당서》도 있다.

일찌기 후진(936—947년)의 류후에 의해 《당서》(즉 후의 《구당서》)가 편찬되었지만 근 한세기가 지난 북송 인종시기(1023—1063년)에 이르러 《당서》에서는 많은 결함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당서》의 수정보충을 정식 제의한것은 당시 재상이였던 가창조였다.*

* 《〈구당서〉와 〈신당서〉》 인민문학출판사 1985년 38페이지

그리하여 인종은 《당서》는 《본기의 배열이 질서가 없고 자세한것과 소략한것이 적중치 않으며 문장서술이 훌륭하지 못하고 사실이 묻혀버렸다.》고 인정하고 1044년(경력 4년)에 조서를 내려 수정보충하도록 지시하였다.*

* 《춘명퇴조록》

이렇게 되어 《당서》를 수정보충한 《신당서》가 편찬되게 되었으며 이전시기의 《당서》는 《구당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당서》는 17년동안 편찬되었는데 1044년(경력 4년)에 시작하여 공부상서 송기가 《렬전》을 편찬하였고 1054년(지화 원년)에 구양수가 계속하여 《본기》, 《지》, 《표》를 편찬하였으며 1060년(가우 5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신당서》는 당나라의 력사를 기록한 기전체의 력사책으로서 본기 10권, 지 50권, 표 15권, 렬전 150권, 총 225권으로 구성되었다.

《신당서》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적지 않은 자료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고구려력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원천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신당서》역시 다른 중국고전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력사에 대해서는 일부 외곡되거나 틀리게 기록된것들이 있다.

사료는 역사연구에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검증된 사료만이 역사적사건사실들을 옳게 해명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와 제한성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여기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를 옳은 태도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2. 본 론

2. 1.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

《신당서》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적지 않은 기사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고구려력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리용되고있다.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는 첫째로, 고구려의 정치제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신당서》에는 고구려5부제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료들이 실려있다.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5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5부를 갈랐는데 내부인즉 한나라의 계루부이며 또 황부라고도 한다. 북부인즉 절노부이며 혹 후부라고도 한다. 동부인즉 순노부이며 혹 좌부라고도 한다. 남부인즉 관노부이며 전부라고도 한다. 서부인즉 소노부이다.》*

* 《신당서》 권 220 열전145 고려

원래 5부명칭은 5개의 큰 귀족집단에 대한 명칭이었을뿐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을 가리키던 통치단위였다.

건국당시 고구려의 통치제도는 5부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구려국의것을 계승한 종래의 5부였다. 그리고 이 5부의 지역이 곧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당시 영역의 전부였다.

이러한 고구려5부에 대하여 《신당서》에서도 언급했다는것은 고구려5부가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 고구려의 전기간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건국한 이듬해부터 소국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에 자기의 령토를 부단히 넓혀나갔다. 그러므로 《전국5부》로서 초기의 성격은 인차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며 자연히 《기내5부》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종래의 5부가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논 귀족세력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거주지역을 단위로 하여 설정된것이였다면 후기의 5부는 철저히 왕기지역을 행정적으로 구획짓기 위하여 설정된 통치단위였다.

《신당서》의 고구려5부에 관한 자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사실의 반영이며 따라서 고구려5부의 변천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사료로 된다.

우의 자료에서 《한나라의 계루부》라고 표현한것은 잘못된것이다. 계루부는 고구려의 소유한 5부의 하나였다. 한나라에는 계루부라는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법률제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료들이 실려있다.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의 법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그 정치는 법을 엄격히 하여 백성들을 단속하기때문에 범죄가 적다. 반역하는자는

모두 화불로 몸을 지지고 목을 베며 그 집은 몰수한다. 투항한자, 패배한자, 살인자, 강탈자는 목을 베고 도적질한자는 10배로 보상하며 소와 말을 도살한자는 노비로 만들기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여기서 나라를 반역하거나 적에게 투항한자들을 엄벌에 처하는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수 있으므로 문제시될것이 없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것도 인민들의 미풍량속과 관련된것으로서 반드시 법이 엄격하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도적질한자, 가난하여 빚을 갚지 못하는자, 소와 말을 도살한자 등에 대한 형벌규정은 고구려의 법이 봉건지배계급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옹호하는 반동적, 반인민적인 법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도적질》이란 많은 경우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인민들이 부자들, 귀족관리들에게 빼앗긴 식량과 물품들을 되찾아내는 계급투쟁의 한 형태였고 소나 말을 도살하는것도 흔히 그러한 투쟁의 일환이었기때문이다.

또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채권자의 노비로 삼게 한다는 법은 소와 말을 도살한자들을 노비화한다는 법조문과 함께 봉건지배계급이 노비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것이였다.*

* 《고구려사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 157페이지

이밖에도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관직제도와 복식제도를 비롯하여 정치제도연구에 필요한 많은 사료들이 실려있다.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는 둘째로, 고구려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있는것이다.

고구려의 강대한 군사력은 우선 당 태종이 고구려침략에 이름있는 장수들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지만 끝끝내 실패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당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주변부족들과 이웃나라들에 대한 정복전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었는데 여기에는 몇명의 장수들만 보내여 단행하였다.

실례로 당 태종은 630년에 리적과 리정을 파견하여 10여만의 군사로 동돌궐을 멸망시켰으며 635년에는 토곡혼을 멸망시켰다. 640년에는 후군집을 파견하여 고창을 멸망시켰으며 이어 구자, 쇄협, 우전, 소록을 복속시켰다.*

* 《중국사강요》 제2책 인민출판사 1979년 164페이지

그러나 당 태종은 고구려침략에 자기가 직접 출전하고 당나라의 이름있는 장수들을 총동원하였다.

《신당서》의 인물렬전에는 당 태종시기 고구려침략에 참가하였던 인물들이 60여명이나 기록되어있다.

이밖에도 수 양제를 따라 고구려에 침입하였던 리밀, 두건덕, 라예, 리경, 배구와 당 고종때 고구려침략에 참가하였던 대가, 신문릉, 위홍기, 류백영, 량건방, 방동선, 고간, 학처준, 가증, 원만경, 팍대봉, 풍사본, 소창, 리근행, 독고경운, 김대문 등까지 합치면 《신당서》에 실린 인물들가운데서 80여명이 고구려침략에 관여하였다.

《신당서》의 인물렬전이 당시 당나라의 뛰어난 인물들을 선별하여 실은 항목이고 또

군사가들뿐아니라 정치가, 문화가 등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적은 수자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당나라에서 중요한 문무관직들을 차지하고있던 실권자들이였으며 주변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주요역할을 한 장수들이였다.

이렇게 당 태종은 고구려침략에 이름있는 장수들을 모두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지만 매번 참패만을 거듭하였다.

고구려의 강대한 군사력은 또한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을 반대한 당나라관리들의 충고와 민심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은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당나라관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치려고 하자 강확이 《경솔하게 군사를 쓰는것은 마땅치 않습니다.》^{*1}라고 간하였고 방현령이 《지금 천하의 일들가운데 성취하지 못한것이 없지만 오직 고구려를 치는것만은 이루지 못하고있다. 임금은 분노를 품고 결단낼 결심을 하였으나 군신들은 감히 간하지 못하고있다. 내가 아뢰지 않는다면 후회를 안고 땅에 묻힐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상소문을 올려 《...〈전〉에 이르기를 만족을 알면 욕을 보지 않고 그만둘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폐하의 위세와 명성, 공로와 업적은 만족하다고 할수 있고 령토개척과 지경확장 역시 그만둘수 있습니다.》^{*2}라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였다.

*1,2 《신당서》 권91 렬전16 강확, 권96 렬전21 방현령

뿐만아니라 리대량은 립종에 이르러 표문을 올려 고구려침략을 그만둘것을 청하였고^{*1} 저수량도 굳이 반대하면서 《한번 패하면 군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야 하지만 다시 일으키면 군사들을 노하게 할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노하면 승패는 확신할수 없습니다.》^{*2}라고 권고하였으며 장량도 마찬가지였다.^{*3}

*1,2,3 《신당서》 권99 렬전24 리대량, 권105 렬전30 저수량, 권94 렬전19 장량

당 태종의 고구려침략은 당나라인민들의 민심에도 저촉되는것이였다.

방현령은 당 태종에게 제기한 상소문에서 《지금 군사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판에 몰리우고 창날과 화살끝에 내버려져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있으니 늙은 아버지와 고아, 파부가 된 안해들과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관을 실은 수레를 기다리고 시체를 안고 가슴이 미여져 얼굴을 감싸쥐고 울고있습니다. 그 까닭은 음양을 변동시키고 온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여 천하에 슬픔이 가득차게 했기때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당 태종의 침략정책을 반대한 당시의 민심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 《신당서》 권96 렬전21 방현령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는 셋째로, 고구려의 예술발전과 생활풍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음악과 교예발전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료들이 실려있다.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의 음악과 교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구려기악에는 탄쟁, 추쟁, 봉수공후, 와공후, 수공후, 비파가 있다. 뱀가죽으로 울림통을 만들었는데 두께가 1치나마 되였다. 린갑이 있는데 가래나무로 면을 만들고 상아로 한발을 만들었으며 국왕의 초상을 그려놓았다. 또 5현, 의취적, 생, 호로생, 소, 소필률, 도피필률, 요고, 제고, 담고, 구두고, 첼판, 패, 대필률이 있다. 호선무가 있는데 무용수들이

공우에 서서 바람과 같이 돌아간다.》*

* 《신당서》 권21 례악지11

《주나라와 수나라는 복제, 진나라와 지경을 접하고있었기때문에 노래와 춤에서 사방의 음악이 섞여있었다. 당나라때에 이르러 동이악에는 고구려, 백제의 음악이 있었다.》*

* 《신당서》 권22 례악지12

보는바와 같이 《신당서》에서는 당시 고구려에서 리용된 악기로 21가지를 들고있는데 여기에는 관악기로서 의취적, 생, 호로생, 소, 소필률, 도피필률, 패, 대필률, 타악기로서 요고, 제고, 담고, 구두고, 첼판, 현악기로서 추쟁, 탄쟁, 봉수공후, 와공후, 수공후, 비파, 5현을 비롯하여 그 종류가 풍부히 갖추어져있었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의 기악음악이 발전하였다는것과 악기창조분야에서 고구려인들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전된 고구려의 음악은 당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에도 널리 퍼져서 그 나라들의 음악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우의 자료에서 보는것처럼 당시 당나라에는 사방의 음악이 섞여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고구려의 음악이었다는것은 당나라의 음악발전에 미친 고구려음악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있다. 또한 고대일본에서는 고구려에서 전해진 저대를 《고마부에》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궁중음악, 민간음악 할것없이 널리 리용하였다.*

* 《고구려사》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8(1999)년 134페이지

그리고 무용수들이 둥근 공우에 서서 바람과 같이 돌아가는 춤동작을 펼치는 《호선무》는 당시 고구려에서 널리 진행된 교예의 한 형태로서 고구려에서 예술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신당서》에는 고구려의 문화풍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있다.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고깔을 쓰며 녀자들은 머리에 건국(머리쓰개의 일종-필자주)을 쓴다.》^{*1}, 《식사할 때에는 변두, 보케, 퇴세를 사용하였다.》^{*2}, 《산골짜기에 의거하여 살았으며 풀로 집이영을 만들고 오직 왕궁과 관청, 불교사원만 기와를 썼다. 가난한 백성들은 한겨울에 긴 온돌을 만들고 불을 지피어 난방을 보장하였다.》^{*3}라는 기록들은 당시 인민들속에서 베가 주요옷감으로 되어있었고 옷차림에서도 여러가지 머리쓰개들이 리용되었으며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식기류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것과 함께 집도 온돌을 놓아 방을 고루 덥힐수 있게 설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변두: 제사나 연회때 사용하던 두가지 종류의 그릇. 《변》은 참대로 만든것인데 과일이나 마른 고기를 담는데 리용하였고 《두》는 나무나 도기, 구리로 만든것인데 가루나 장과 같은 성분의 음식을 담는데 리용되었다.

보케: 음식을 담는 두가지 종류의 그릇. 도기제품 또는 청동제품이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담아 제사에 리용하였다.

퇴세: 《퇴》는 고대시기 술이나 물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도기로 만든것과 구리로 만든 것이 있었다. 《세》는 고대시기 손을 씻는 청동그릇이었다.

또한 《혼인할 때에는 폐백을 쓰지 않으며 받는자는 부끄럽게 여긴다.》^{*4}라는 기록은 허례허식적인것보다 소박한것을 좋아하는 고구려인민들의 혼례풍습을 보여주고있다.

*1, 2, 3, 4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그리고 《부모상은 3년간 상복을 입으며 형제상은 달을 넘기지 않는다.》^{*1}라는 기록은 비록 봉건유교적인 상례풍습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물론 죽은 후에도 잘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지극한 효성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마을, 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서로 힘써 배우므로 길걸에 모두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고 이름짓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보내어 경전을 외우고 활쏘기를 익히도록 하였다.》^{*2}라는 기록은 고구려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책읽기를 즐기고 상무기풍을 확립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2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는 넷째로, 고구려의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좋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국내정세가 안정된 다음부터는 역시 고구려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외교적방법으로 내정에 간섭하여 고구려를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영류왕을 비롯한 집권통치층은 당나라의 요구에 굴복하여 양보하는데로 나갔으며 그것은 고구려인민들과 진보적인 귀족층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결과 642년에는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났으며 정권을 차지한 연개소문은 대당강경정책을 실시하였다.

643년에 연개소문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오늘의 금강계선에 진출하였다.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개소문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무렵에 이 계선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의 반영으로 볼수 있다. 그러자 당 태종은 644년초 사농승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보내어 신라를 치지 말것을 《권고》하였다. 이때 연개소문은 《전번에 수나라가 침범하였을 때 신라가 틈을 타서 우리 령토 500리를 빼앗았으니 지금 그 땅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군사를 거둘수 없다.》^{*}라고 당나라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물리쳤다.

*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상리현장의 귀환보고를 들은 당 태종은 전쟁도발의 구실이 생겨났다고 기뻐하면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구려에 다시한번 사신을 파견하여 위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리현장이 고구려에 갔다가 된타격을 받고 온것을 잘 알고있던 당나라관리들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때 우둔위병조참군 장엄이 《천자의 용맹한 군사들을 사방의 오랑캐들이 두려워하고있으니 보잘것없는 나라가 감히 임금이 파견한 사람을 죽이겠는가. 만약 불행이 생긴다면 진실로 내가 죽어야 할 곳이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고구려에 찾아왔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당나라의 부당한 행동에 장엄을 6년동안 땅굴에 가두어놓는것으로 대답하였다.^{*}

* 《신당서》 권100 렬전25 장엄

이처럼 고구려는 대외관계에서 그 어떤 외부세력의 내정간섭도 단호히 물리치고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위엄을 당당히 지켜나갔다.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가치는 다섯째로, 고구려의 령역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당 태종은 위정에게 군량운반을 맡기면서 《유주로부터 룡동까지 2 000리구간에 주,

현들이 없으니 나의 군사를 먹여줄데가 없다. 경이 짐을 위해 그것을 말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신당서》 권98 렬전23 위정

이것은 《주서》와 《북사》에서 고구려의 서변이 료수를 지나 2 000여리에 이르렀다*고 한 기록과 부합되는것으로서 고구려가 강성기에 서쪽으로 료하서쪽 2 000리 지역까지 차지한 강대국이였다는것을 반증해주는 자료로 된다.

* 《주서》 권49 렬전41 이역 상 고려, 《북사》 권94 렬전82 고구려

당시 오늘의 료서지방에는 거란족, 해족 등이 살고있었으며 고구려는 여기에 《위락주》, 《사리주》, 《거단주》 등 《기미주》형식의 속령들을 가지고있었다고 인정된다.

《신당서》에 나오는 이 주들은 고구려의 옛땅에 두려고 하였던 9도독부의 일부인데 《위락주》는 해족이 살고있던 요락수류역에 둔것으로 보이며 또 《사리주》는 사리가 거란족의 벼슬이름이고 《거단주》는 거란의 표기가 《거단》이므로 이 두 주는 거란족거주지역에 두었던것으로 보인다.

물론 648년에 거란, 해의 일부가 당나라에 가붙어서 당나라가 송막도독부, 요락도독부를 두었다고 하지만 650년대의 고구려-당전쟁이 주로 토호진수(로합하)가에서 진행된것을 보아서 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그 옛땅에 두려고 한 주이름들인것을 보아서 7세기 중엽까지도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속령이였다고 인정된다. 645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였다가 참패하였을 때 연개소문장군은 만리장성을 넘어 유주(베이징)까지 당 태종을 추격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고구려는 만리장성부근까지의 지역을 통제하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 《고구려사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2005년 84페이지

그밖에도 료서지역에는 《고리》, 《고로》, 《귀루(구루-성)》 등 고구려와 관련된 지명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신당서》나 《주서》, 《북사》의 기록이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엄연한 력사기록들을 무시하고 이 시기 고구려의 서북령역은 료수계선을 넘어서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 《중국정사 <고구려전>상주 및 연구》 홍콩아시아주출판사 2006년 297페이지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신당서》는 정치, 군사, 문화, 대외관계, 력사지리 등 여러 측면에 걸쳐 고구려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사료로 된다.

2. 2.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제한성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들은 고구려력사연구에서 일정한 가치와 함께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제한성은 첫째로, 일부 력사적사실들을 외곡하여 기록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신당서》에서는 조선을 《기자의 나라》이며 한나라의 령역이였던것처럼 력사적사실을 외곡하였다.

607년 수 양제를 따라 돌궐 계민극한의 군막으로 행차하였던 배구는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습니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였고 한나라가 3군으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복종하지 않고있으니 선대임금들이 그것을 가슴아파하면서 치려고 한지 오래였습니다. 비로소 폐하의 시대에 이르렀는데 어찌 다스리지 않을수 있겠습니까.》*¹라고 고구려침략을 부추기였고 당나라의 증서시랑이었던 온언박은 당 고종에게 《료동은 본래 주나라 기자의 나라였고 한나라 현도군이었으니 신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4이가 어찌 우러러보겠습니까.》*²라는 열토당토한 꾀변을 늘어놓았다.

* 1, 2 《신당서》 권100 렬전25 배구, 권91 렬전16 온언박

배구, 온언박의 이 말은 사실 대국주의적관점에서 고구려침략에 환장이 된 나머지 제나라를대로 꾸며낸것이였다. 수, 당나라가 침공해온 고구려의 령토는 아득히 먼 옛적부터 조선민족의 삶의 터전이였다.

신석기시대이래로 오늘의 조선반도와 료하이동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의 문화갓춤새가 같다는것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그에 뒤이어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고대문화가 같고 고대이래로 이 지역 주민들의 언어, 풍속이 같다는것도 유적유물과 옛 기록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물론 료동땅의 일부가 고조선이 무너진 후 한나라에 소속된적이 있지만 고구려인민들의 주동적인 투쟁에 의해 몇세기이후에는 모두 회복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구려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고구려의 령토가 마치도 원래부터 저들의 땅이였다고 하였던것이다.

또한 《신당서》에서는 《조공》, 《책봉》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고구려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마치도 고구려가 당나라의 속국이였던것처럼 서술하였다.

《신당서》에서는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어 외교상 물건을 교환한 사실을 모두 《조공》*으로 외곡하였다.

* 《신당서》 권91 렬전16 온언박, 권220 렬전145 고려

그러나 이것은 중국봉건사가들이 한나라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무역관계를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대국주의적관념에서 외곡서술한것이다. 실지 《조공》을 받는 《종주국》인 당나라자신도 당 고조때 돌궐이 자주 침입하는데 대하여 골머리를 앓고있다가 자기를 돌궐의 신하로 칭하면서 막대한 공물을 바치는데까지 이르렀다.*

* 《신당서》 권215 상 렬전140 상 돌궐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였지 돌궐의 《지방정권》 또는 예속국가가 된것은 아니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중국 력대 나라들과 가진 《조공》관계는 《속국》, 《지방정권》으로서의 《조공》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무역관계로서의 《조공》이였으며 《책봉》 역시 당나라가 고구려를 《속국》이나 《지방정권》으로 인정한것이 아니라 외교상의 형식적인 문서놀이이며 아무런 구속력도 없었다.

다음으로 《신당서》에서는 645년 고구려-당전쟁당시 저들의 침략무력을 줄여서 기록하였다.

《신당서》에서는 645년전쟁당시 저들의 침략무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태종이 락양에 이르렀다. 이어 장량을 평양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상하, 좌난당을 부총관으로 삼았으며 염인덕, 류영행, 장문간, 방효태, 정명진을 총관으로 삼아 강, 오,

경, 락에서 모집한 군사 4만명과 오의 함선 500척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리적을 룡동도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고 강하왕 도종을 부총관으로 삼았으며 장사귀, 장검, 집실사력, 설필하력, 아사나미사, 강덕본, 국지성, 오흑달을 행군총관으로 삼아 그에게 배속시키고 기병 6만을 거느리고 룡동으로 향하게 하였다.》*

*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우의 자료에서 보면 당나라침략군은 수군과 륙군이 총 10만명에 불과한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침공한 병력수와 그 후방보장인원수는 100만명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구당서》와 《책부원귀》에 실린 토번왕이 당 태종에게 보낸 글에는 당나라침략군이 100만대군으로 기록되어있다.*

* 《구당서》 권196 상 렬전146 상 토번 상, 《책부원귀》 권970 외신부 조공

또한 행군총관수만도 16명*(《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조에는 13명으로 되어있고 《책부원귀》 권117 제왕부 친정2에는 좌효위중랑장 안현화까지 포함하여 14명으로 기록되어있지만 이것은 소략하여 기록한것임.)이니 이것은 16개 군단이 동원된것으로 볼수 있으며 1개 군단을 5 000명씩으로 보아도 전투부대만 약 80만명정도였을것이다.

* 《신당서》 권2 본기2 태종

그리고 《구당서》 권77 양찬전에는 그의 조카 양후례가 안시성싸움에서 마보군 24군을 거느리고 싸움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것 역시 당나라침략군의 수가 대단히 많았다는것을 보여준다.

* 《구당서》 권77 렬전27 양찬

뿐만아니라 《신당서》에서는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음 행동할 때 군사가 10만명이 고 말이 1만필이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1 000명이 죽고 말은 10마리중 8마리가 죽었으며 수군은 7만명가운데서 수백명이 죽었다.》*라는 서로 다른 기록을 실고있는데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는 침략군력량이 17만명으로 되어있다.

*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우의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당서》에는 당나라침략군의 사상자가 겨우 천수백명 정도로 기록되어있다. 전쟁에 동원된 인원수부터 줄인것으로 보아 사상자는 그보다 더 줄었을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얼마나 참혹한 패배를 당했으면 당 태종이 645년의 룡동결음을 두고 후회하면서 《위징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이번 행차가 있었겠는가?》*¹라고 한탄하였고 반역자 고연수는 고구려군이 승승장구하는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던 나머지 너무도 억이 막혀 죽고말았다.*²

*1 《신당서》 권97 렬전22 위징

*2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4년 10월

《신당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사료의 제한성은 둘째로, 당나라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들을 숨기거나 간략하였으며 사건사실들을 부정확하게 기록한것이다.

우선 《신당서》에서는 고구려-당전쟁에 대하여 저들이 이긴 전투는 장황하게 서술하고 전과도 과장하여 기록하였지만 반대로 패한 전투에 대해서는 《이기지 못하였다.》,*¹

《군사를 돌리었다.》^{*2} 등으로 간단히 처리해놓았다.

*1 《신당서》 권108 렬전33 류인귀, 권147 렬전72 왕사례, 권220 렬전145 고려

*2 《신당서》 권2 본기2 태종, 권110 렬전35 설필하력, 권111 렬전36 설인귀

그리하여 고구려-당전쟁시기 고구려인민들의 투쟁과 승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수 없게 되었다. 100만에 달하는 당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애국적이며 용감한 고구려인민들은 빛나는 승전을 수많은 이룩하였을것이고 또 그 과정에 애국명장들의 통쾌한 무훈담들도 창조되었을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신당서》편찬자들의 잘못된 처사에 의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의 관제를 12등급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 《신당서》 권220 렬전145 고려

여기서 고구려의 관제가 12등급이라고 기록한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한원》에서 인용한 《고려기》와 그에 기초하여 고구려관제를 서술한 《통전》에서는 《벼슬은 9개 등급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매 등급을 또 정, 종으로 갈라 총 18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아래 주석으로 벼슬이름들을 쓰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직능까지 해설하였다.*

* 《한원》 번이부 고려, 《통전》 권186 변방2 고구려

《고려기》는 641년 당나라의 직방랑중 진대덕이 정탐임무를 받고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산수구경의 명분으로 고구려의 군사비밀을 수많은 렬탐하여가지고 가서 당 태종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 《〈고려기〉편찬시기와 저자고》 고적정리연구학간(제2기) 1998년

이 《고려기》는 후에 《한원》과 《통전》 등의 고구려부분서술에서 중요한 사료로 되었다. 그런것만큼 《고려기》의 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따라서 당시 고구려의 관제도 《고려기》의 기록대로 18등급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신당서》가 당나라의 단대사인것만큼 그 시기의 고구려관제를 서술하여야 하겠으나 《수서》, 《남사》, 《북사》, 《구당서》의 기록을 무턱대고 옮겨놓다나니 이러한 착오를 범하게 되었던것이다.

3. 결론

이처럼 《신당서》는 고구려의 정치, 군사, 문화, 대외관계, 령역 등을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많은 제한성들을 안고있다.

옛 문헌기록들은 역사연구에서 의거해야 할 기본수단으로 되지만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특히 다른 나라 고전들인 경우에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사료들에 대한 고증과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역사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고구려5부, 연개소문, 대당강경